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 주력

무주군,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26명 20일까지 모집

무주군은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대상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환경 정비·정화, 터미널 환경정화, 시설관리 등 54개 분야 / 사업 기간 10. 1.~12. 31.) 참여자 126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8세(2007년 8월 4일 이전)에서 74세(1950년 8월 5일 이후) 미취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이하, 주민등록 거주 가족 합계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무주 군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하면 되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직접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2회 연속 참여자와 중복참여자, 1세대 2인 신청자, 직전 단계 포기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주·연차 수당과 교통(간식)비 5천 원은 별도 지급된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무주군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총 11억 8천9백만 원을 투입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3차까지는 320명이 환경정비, 시설관리 등 149개 분야 사업에서 일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고른 기회, 알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부터 선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무주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무주군 인구활력과 일자리팀(063-320-2062),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조직 경쟁력 강화 박차

비전·전략과제 보고회 가져

무주군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팀별 비전과 전략과제를 수립, 7월 30일과 31일, 8월 4일 3일간 '비전 및 전략과제 보고회' 가졌다.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청 내 127개 팀장들이 팀별 비전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및 현황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덕유산 및 향로산 자연휴양림 연계 치유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아웃도어 산업 연계 레저 관광 활성화, △낙화놀이 및 태권도 퍼포먼스 주말 상설 운영 등이 거론됐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실현, △아동친화도시 실현, △돌봄 관련 자격증 취득반 운영, △무주 공동 육아문화센터(무주 자람:온) 구축 등이 공유됐다.

산림 분야는 △임업 분야 전문 교육과정 신설, △덕유산 산림레포츠 거점 조성, △덕유산 둘레길 투어로드 조성 등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이외에도 건설분야에서는 △광역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 확충(무주~대구 고속도로, 전주~김천 철도 건설),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추진 필요성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보고회는 무주군의 현재를 짚어보고 무주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계기였다"라며 "보고회에서 논의된 비전과 전략과제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군민이 체감하는 무주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에서 지난 2일 열린 '2025 쿨밸리 트레일레이스'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695명의 트레일러너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트레일러너, 장수 여름 달리다

장수군, 695명 참여 '쿨밸리 트레일레이스' 성황리 개최

장수군에서 지난 2일 열린 '2025 쿨밸리 트레일레이스'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695명의 트레일러너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18.8km 단일 코스로 오전 8시 장수종합경기장을 출발해 동촌리고분군, 마봉산, 논개활공장, 사두봉 능선 등 장수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를 경유한 후 방화동 생태길을 지나 방화동 자연휴양림으로 골인하는 코스로, 제한 시간은 6시간이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남자부문에서는 이형모 선수가 1시간 48분 29초로 1위를 차지했고, 김수용 선수(1시간 50분 34초), 박윤하 선수(1시간 56분 22초)가 뒤를 이었다.

여자부문에서는 김해주 선수가 2시간 10분 53초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권보경 선수(2시간 21분 33초), 전아현 선수(2시간 26분 21초)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같은 기간 열린 '제3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을 함께 즐기며, 방화동 휴양림의 계곡물 아이싱 체험과 물놀이 프로그램, 밸리밥 공연 등 다채로운 여름 이벤트를 통해 무더위를 식히고 축제의 재미도 만끽했다.

락앤런 김영록 대표는 "장수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본 대회를 국내 대표 트레일러닝 대회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장수를 찾아와 트레일레이스를 통해 장수의 청정 자연과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장수는 사계절 내내 트레일러닝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인만큼 다가오는 9월 개최되는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와 10월 '제2회 캐니스로스 장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하반기에도 두 차례의 트레일러닝 행사를 앞두고 있다.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6회 장수 트레일레이스'에서는 국내 최초 100마일(약 173km) 코스를 신설해 국내 메이저 산악 레이스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18일에는 반려견과 함께 달리는 이색 트레일레이스인 '제2회 캐니크로스 장수'도 개최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제2회 장수읍 아이조아 축제' 8일 개최

장수군 장수읍은 오는 8일 장수읍 누리파크 일원에서 '제2회 장수읍 아이조아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참여형 놀이로 구성돼 풍성한 하루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고고장구와 색소폰 연주로 문을 열고 기념식 이후에는 마술, 버블, 풍선아트, 변검 등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신발던지기, 딱지치기, 물풍선 받기, 롤렛 돌리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체험부스에서는 △캐릭터 키링 만들기 △에코백·부채 꾸미기 △수경화초 심기 △페이스페인팅 △호루라기 키링 만들기 △타투 스티커 △캐리커쳐 △소방안전체험 등 10여 종의 풍성한 체험활동이 운영된다.

먹거리존에서는 장수 특산물인 사과즙, 오미자즙, 토마토즙 시음은 물론 옥수수, 아이스크림, 츄러스 등 간식거리도 마련된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아이와 나' 가족 노래자랑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접수를 통해 선착순 10팀이 참가할 수 있으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맥류·감자 정부 보급종 신청 접수

무주군이 올해 가을에 파종할 맥류(보리·호밀) 및 감자 정부 보급종 공급에 나선다.

맥류는 이달 20일까지, 감자는 2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맥류는 겉보리(큰알보리1호), 쌀보리(흰찰쌀보리), 호밀(곡우)이며, 총 440kg이다.

겉보리 공급가격은 20kg 1포대 기준으로 소독·미소독 36,700원, 쌀보리는 소독·미소독 41,540원이다. 호밀은 미소독 종자만 공급하며, 가격은 49,240원이다. 가을 감자는 총 5,000kg를 확보했으며 공급가격은 20kg 1상자 기준 수미는 32,880원, 두백은 37,600원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간부공무원 청렴 실천 선언식 가져

진안군은 4일 군청 강당에서 '2025년 간부공무원 청렴 실천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번 청렴 실천 선언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30여 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되새기고 부패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선언식 이후 진행된 청렴 회의체 보고회에서도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안, 반부패·청렴 실천 계획 점검 등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이산으로 간 해적' 물놀이 행사 성료

진안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간 마이산 북부에서 개최한 '마이산으로 간 해적' 물놀이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약 7,000여명이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46%가 전주시민이었고 전북특별자치도내 15%, 도외에서 방문한 인원도 24%를 넘겼으며 진안군 관내 방문객은 15% 정도로 집계돼 도내 인기 피서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행사장에는 11m 높이의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유아·어린이용 소형 슬라이드 2개를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제공했다.

여기에 페이스페인팅, '보물을 찾아라' 미션 게임, 해적왕 DJ 파티, 해적단 퍼레이드 등 이색 이벤트가 더해져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군의 무더위와 안전 대응도 눈에 띄었다. 대형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인조 잔디와 평상을 설치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으며, 상시 소독과 청소를 통해 깨끗한 수질을 유지했다. 또한 자격증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고발생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5회 진안고원 수박축제·동향면민의 날 열려

진안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동향면 체련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진안고원 수박축제 및 제28회 동향면민의 날'에 6,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체험, 전시, 물놀이 등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악대 풍물공연으로 시작해 동향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으며 기념식 내 진행된 수박 빨리 먹기 대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새어나오는 웃음에 장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수박공예, 수박왕 전시, 추억의 물품 및 사진전 전시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수박·한우 등 지역특산물 판매가 진행됐으며 특히 동향수박 시식코너를 통해 수박의 맛을 알았다며 축제를 방문한 많은 방문객들이 돌아가는 길에 수박을 사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했다.

특히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안전 대책에도 신경을 써 구급차 대기 및 의료반 운영, 소방 경찰이 상시 행사장을 지키며 온열 환자에 대한 대비에 철저를 기해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돼 호평을 받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